

## 참혹하게 아름다운 섬, 소록도

—감금을 딛고 자치로 거듭나는 한센병 환자들의 삶

명숙

“소록도 저도 알아요. 방송광고에서 들었어요.”

소록도로 인권기행을 가자고 권하면 사람들이 비슷하게 반응했다. 공익광고 덕에 많은 사람들이 소록도를 알고 있었다. 광고는 43년 전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마리안느와 마가렛이라는 두 명의 수녀가 가방 하나 들고 소록도로 가는 내용으로, 봉사는 큰 능력이나 기술이 있지 않아도 마음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센병 환자에 대한 편견이 많았던 그 시절, 그러한 용기를 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딱 거기까지만 미쳤다. 여전히 사람들은 한센병에 대해 무지했고 편견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더러는 “소록도에 아직도 나병 환자들이 살아요?”, “소록도에 가도 전염이 안 돼요?”라고 묻기도 했다. 공포의 흔적이 남아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한센병 환자들은 타자화된 존재다.

한센병은 나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피부와 신경계에 침범하여 피부와 신경을 변화시키는 병이다. 감염되면 피부가 손상돼 손이나 발,

얼굴이 문드러져서 형체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보니 외모가 다르고 그로 인해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 공포와 기피대상이 되곤 했다. 한센병이 쉽게 전염되는 병이 아닌데도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꺼려하고 멀리했다. 도저히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다. 어렸을 적 사람들이 동네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욕을 하는 모습은 흔한 광경이었다. 피부가 문드러져 문둥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나균에 의한 병이라 나병이라고도 불렀다. 하늘이 내린 벌이라는 의미로 천형이라고 불렀던 이런 무시와 차별의 설움을 담은 것인가 싶다. 나병, 문둥병이라고 부르는 동안 한센병을 앓거나 앓았던 사람들이 겪었던 차별과 폭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2000년대 들어서는 나균을 처음 발견한 노르웨이 의사 한센의 이름을 따 한센병이라고 부른다.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한센병은 쉽게 낫지 않는 병으로 고생했지만 지금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발표한 것처럼 치료만 잘 받으면 완치될 수 있는 병이다. 한국에 있는 한센병 환자 중 3%만이 활동성일 정도로 대부분 치료돼 1980년대 중반에 세계보건기구는 우리나라 한센병 퇴치국가라고 했다.

한센병 환자에 대한 폭력과 배제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강화됐다. 특정 질병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국가권력의 힘과 만나면 편견은 무지막지한 폭력이 된다. 일본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침략하며 자신들의 지배는 미개한 나라들을 ‘우수한 나라’로 만드는 일이라고 선전했다. 문명이 전쟁과 폭력의 기준이 되는 듯 떠들어댔다. 제국주의가 보기에 문명의 대명사는 질병 퇴치이자 열등한 인종(유전자)를 없애는 것이었으므로, 한센병은 없애야 하는 질병이며 한센병 환자들은 사회로부터 절멸시켜야할 대상이었다. 독일제국주의가 그러했듯 우수한 인종과 유전자만이 세상을 살 권리가 있다는 우생학적 관점은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멸종 의지로 드러났다.

일본은 1907년 ‘나예방에 관한 건’이라는 법률을 제정하여 일본에서 한센병 환자 격리정책을 실시했고 1931년 1월 애생원이라는 국립나요양소를 만들었다.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자 그 정책을 고스란히 들여왔다. 조선총독부가 1916년 소록도에 자혜의원을 설립하고 한센병 환자들을 강제 수용했다. 1934년 소록도자혜의원을 소록도갱생원으로 바꾸고, 1935년 조선나예방령을 발표하면서 강제수용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요양소와는 다른 강제격리 수용시설이다. 소록도에 수용인원이 가장 많았을 때가 6,500명이었다.

## 커피 대신 박카스

출발지인 서울에는 비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우리는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남단을 살짝 경유할 것이라는 일기예보를 뒤로 하고 소록도로 떠났다. 길잡이는 조영선 변호사다. 그는 2004년부터 ‘일제하 소록도 강제격리 피해자 보상한국변호단 간사’로 활동했다. 소록도로 들어가는 버스에서 조 변호사가 소록도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때는 지금처럼 섬까지 잇는 다리가 있지 않아서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오가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지금보다 섬이 더 쓸쓸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한센병에 대한 인식도 깊지 않은데다 워낙 외부인에게 멸시를 당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어서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랐어요. 악수를 청하는 게 예의에 맞는지, 혹시 그분들이 불편해하지는 않을지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야 서로 손잡고 얘기도 하지만 그때는 안 그랬습니다. 신체접촉만 해도 마치 전염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떠들어댔으니 이 분들도 외지인들을 만나면 뭐든 조심했던 거지요. 이따 가시면 아시겠지만 이 분들은 방문자들에게 커피를 타주지 않고 박카스를 줍니다.”

커피 대신 박카스라니, 씹쓸했다. 한국 사람들의 혼한 손님대접인 커피믹스 대접조차 한센병을 앓았던 사람들은 할 수가 없다. 커피를 탔던 컵이나 물로 전염되지 않을까 지레 겁먹는 사람들 때문인지 그들은 방문자들에게 밀봉이 된 일회용 음료수를 권한다. 소수자로 사는 건 이렇게 누구나 쉽게 하는 일상이 어려운 상상이 돼버리는 일이구나.

별교를 지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햇살이 비친다. 따사롭다. 우리는 별교에서 점심을 먹고 소록도로 들어갔다. 섬은 강제격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좋은 자연 조건이다. 바다는 부드러운 창살이자 높은 벽이다. 섬에 갇힌 한센병 환자들은 섬을 탈출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바다에 뛰어들었다. 자유롭게 일렁이는 바다를 보며 자유를 갈망했을 것이다. 게다가 섬 왼쪽 500m도 안 되는 곳에 녹동항이 있으니 해볼 만한 일이라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물살이 세서 건너기가 만만치 않아 잡히거나 바다에 잠겨버렸다. 얼마 전 한센 관련 토론자료에서 본 바다에 떠 있는 한 남자사진이 생각났다. 밑에 도주자라고 쓰여 있었는데... 바다를 건너려던 그는 어떻게 됐을까? 무사히 건넜을까, 물에 휩쓸려 생을 마감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가 소록도를 잇는 다리에 다다랐다. 섬이 보인다. 아름답다. 그런데 소록대교는 섬 가운데를 통과하도록 설치됐다. 미적인 의도도, 생태적 의도도 아니다. 섬의 지형을 살리려는 의도였다면 굳이 가운데가 아니라 섬의 가장자리로 이어졌을 것이다. 다리는 묘하게도 병사지대와 관사지대를 나누듯 통과한다. 소록도는 한센병을 치료하고 한센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사는 병사(病舍)지대와 한센병을 치료하거나 섬을 관리하는 의사, 간호사, 관리자들이 사는 관사(官舍)지대로 나뉘어서 운영됐다. 다리는 경계선처럼 놓여 있다. 이곳은 한센병을 앓았던 사람들을 영원한

분리하는 장소임을 선포하는 것인가. 소록도가 물과 이어지더라도 한번 병사 지대는 영원한 병사지대로 두겠다는 강한 의지다. 소록도는 이제 한센병 환자들을 강제수용하는 공간이 아니지만 여전히 차별은 다리 위치에서조차 드러난다.

섬이 강제수용소였던 시절에 두 지대의 경계를 강화하는 행위는 많았다. 마치 한센병이 전염되더라도 하는 것처럼 병사지대에 갔다 오는 직원들은 무조건 소독을 했다. 환자들이 작성한 우편물마저 소독했다. 환자들은 이른바 관사지대로 나올 수 없었으며, 경계선 감시소를 세울 정도로 경계는 엄격했다. 치밀하게 진저리치는 차별의 경계는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다.

### 한센인이라 부르지 마세요

버스는 주차장으로 갔다. 양쪽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늘어선 가로수길이 보인다. 수탄장이다. 수탄장은 탄식의 장소라는 의미로, 강제격리된 한센병 부모와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서로를 애타게 부르며 눈물을 흘렸던 곳이다. 한센병 환자들의 아이들은 부모와 같이 살수 없었고 아이들은 관사지대에 있는 미감아보호소에서 지내야 했다. 미감아, 아직 감염되지 않은 아이라는 말에서 편견의 냄새가 짙다. 조변호사가 주민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해준다.

“두 줄로 부모와 아이들을 세우고 바람방향에 따라 서는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바람이 왼쪽에서 불면 아이들을 왼쪽에 세우고 반대로 불면 반대쪽에 세웠대요.”

슬프지만 어이없는 이야기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곧장 원생 자치회 관으로 갔다. 그곳에서 남재권 소록도 주민자치회장님을 비롯한 3명의 자치회 주민들이 우리를 맞이해줬다. 강당 앞에는 조변호사의 말대로 우리에게 나누어줄 ‘비타500’ 두 박스가 놓여있었다. 비타500의 글씨가 차별500으로 보인다. 비타500과 커피믹스 한 잔이 자연스런 선택이 될 날은 언제 오려나.

먼저 여덟 살에 어머니를 따라 소록도에 들어와 스물 살에 사회에 나가 일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들어오셨다는 주민이 소록도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셨다. 그의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는 깜짝 놀랐다. 한센인이라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 법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한센병을 치료받고 있거나 치료 받은 자, 이하 한센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결핵을 걸린 사람은 결핵인이 되고 정신병을 앓았던 사람은 정신병인이 되나요? 왜 한센병을 앓았던 사람들만 그렇게 불려야 하죠? 우리나라는 국제기준에 따르면 한센병 퇴치국가입니다. 1년에 5명도 발생하지 않는데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쓰냐며, 국회에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안이 뭐냐고 해요. 한센병이 완치 됐으면 그냥 끝이지 무슨 대안이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한센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른 것인가요?”

아뿔사! 이번 소록도기행 안내문에도 한센인이라고 썼는데... 내 무심함이 부끄러워졌다. 그저 2007년 제정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보고 인권변호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법이니 괜찮겠거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법에 명시된 명칭을 그대로 썼다. 국가인권위에서 발행한 보고서도 <한센인 인권실태조사 보고서>라고 돼 있다. 한번만 돌이켜봤으면 그게 이상한 명칭이라는 것을 눈치 챌 수도 있었을 텐데...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지금 소록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완치된 사람이다. 완치된 사람도 한센인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 특정 질병을 앓고 있거나 앓은 사람은 특정해서 구분하고 분류하는 것은 차별이다. 차별은 특정 기준으로 소수자들을 분류하고 구분하는 것도 포함된다. 진상규명과 피해 구제를 위한 법에서 한센병을 앓았던 사람들을 차별하는 명명을 만들다니... 길더라도 그냥 한센병을 앓고 있거나 한센병을 앓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한센인’이라고 굳이 속성화했다. 구분과 배제에 익숙한 사회는 특정 질병을 앓는 사람들을 속성화한다. 한센병 환자들을 멸종시키려는 단종과 낙태수술도 거기에서 출발했다.

이어서 자치회장님이 말씀을 이어갔다. 그는 열세 살 때 소록도에 들어와 64년을 꼬박 살았다.

“소록도는 현재 487명이 살고 있습니다. 섬이 참 아름답습니다. 저절로 섬이 아름다워진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돌을 쌓고 산에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나무를 심을 때 ‘당신들은 죽어도 좋지만 나무는 죽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일본사람들만 모질게 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똑같이 모질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소록도에 케이블카를 놓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오고갑니다. 고흥군은 원생들이 자치회가 원하지 않으면 안하겠다고 이번에는 약속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소록도는 원생들의 섬이 돼야지 관광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선배들의 노고로 이제 살만해지니까 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다리(소록대교)도 반갑지 않습니다. 우리도 나이 먹고 점차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록도는 영구히 보존돼서 과거 선배들이 겪었던 고통을 기억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부탁할 테니 도와주세요.”

그는 소록도에서 죽겠다며 말을 맺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어디를 가나 개발이 문제다. 국가폭력이 끝나니 (관광)시장의 폭력이 시작되는 건가. 참혹한 고통을 벗어나니 다시 맞닥뜨린 돈의 권력. 단종과 낙태 수술만이 아니라 감금과 폭력, 강제노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던 소록도가 기억의 장소가 되기도 전에 돈에 묻힐 판이다. 상상하니 끔찍했다. 개발의 폭력은 국가폭력의 희생자조차 빗겨가려 하지 않는구나.

### 1945년, 그들에게 해방은 오지 않았다

인사를 마치고 박물관으로 올라갔다. 2016년 10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박물관이다. 소록도 자치회 주민의 설명을 들으며 돌아보았다. 박물관에는 한센병에 대한 설명, 소록도에서 벌어진 인권유린과 한센병을 앓았던 사람들의 유품과 물품, 시대적 상황들이 잘 정리돼 있었다.

일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1945년 조선이 해방됐으나 소록도는 해방구가 아니었다. 해방 후 병원 내부 갈등이 번진 후 당시 병원 직원들은 외부 치안대와 함께 한센병 환자 84명을 살해했다. 2002년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시작됐다. 이들이 묻혔던 자리에 ‘애한의 추모비’가 세워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에야 직원들에 의한 한센병 환자 학살사건으로 규정했다. 1957년까지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집단학살사건은 전국에 10건이 넘으며, 한센병 환자들을 범죄자로 몰기도 했다. 한센병 환자들을 범죄자 취급한 대표 사건이 ‘개구리소년사건’

이다. 1991년 3월 초등학교 5명이 실종됐는데 누군가 한센병 환자들이 사는 칠곡군 마을에 소년들이 생매장됐었다는 허위제보를 했고 언론은 그대로 보도했다. 주민들은 해당 장소를 공개하고 명예훼손에 대해 항의했으나 언론은 몰래 주민 집을 수색하기까지 했다. 그리고도 국가와 언론은 그 일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그 기록도 전시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센병 환자들을 강제수용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단종수술도 이어졌다. 결혼을 하려면 정관수술을 전제로 한 부부동거가 가능했다. 1963년 전염병 예방법이 일부 개정돼 한센병 환자에 대한 강제격리규정이 없어졌으나 한센병 환자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로 소록도 병원이나 기타 국립시설에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보내졌다. 한센병 환자들이 겪은 고통과 슬픔의 역사가 모레그림 영상으로도 제작돼 볼 수 있었다.

## 잔혹의 공간을 지나

박물관이 커서 그런지 슬쩍슬쩍 보는데도 1시간이 지났다. 박물관을 나와 검시실과 감금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울창한 나무가 즐비해 산책코스 같이 잘 정돈된 길을 걷다보니 낮은 건물들이 보인다. 검시실이다. 지금은 비워져 하얀 시체해부대와 텅 빈 벽장만이 남아있었다. 이곳에서 한센병 환자들의 시신이 임상실험용으로 해부됐다. 지금은 빈 벽장이지만 예전에 그곳에 포르말린을 이용하여 태아표본이나 인체표본을 만들어 보관했다고 한다. 의사들은 자신의 의학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망 후에도 한센병 환자들은 무조건 해부했다. 그래서 자조 섞인 말로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은 세 번 죽는다들 했다. 한번은 실제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 두 번째는 주검이

해부되는 죽음, 세 번째는 화장으로 시신이 태워지는 죽음이다. 시체해부대  
판 가운데 구멍으로 흘렀을 주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끔찍하다.

검시실에서 나온 후 감금실로 갔다. 교도소와 같은 감금실은 꽤 컸으  
나 어두웠다. 방마다 변기가 있었다. 무릎높이로 높게 만든 방도 있었다.  
들어가 봤다. 언제 누가 썼는지는 모르는, 무언가로 긁어 새겨놓은 글씨들이  
보인다.

공포의 장소를 나와 중앙공원 한 가운데로 가니 미카엘 대천사가 창을  
내리꽂는 하얀 동상이 보인다. 구라탑, 나병을 구한다는 뜻이다. 밑에는 ‘한  
센병은 낫는다’로 새겨져있다. 원 글씨는 ‘나병은 낫는다’였는데 용어가 바뀌  
면서 글귀도 수정한 것이다. 성서에서 미카엘은 사탄과 싸우는 천사다. 미카  
엘이 창으로 찌른 것은 한센병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지금 찢어 없애야 하는  
것은 한센병이 아니라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차별이 아닐까. 한센병 환자들만  
이 아니라 HIV/AIDS 환자들도 병 때문이 아니라 차별 때문에 죽어가듯이  
말이다.

구라탑에서 위쪽으로 걸으니  
정원이 잘 가꿔져 있다. 일본식 정원이  
다. 중앙공원은 소록도갱생원들의 강  
제노동으로 이루어진 장소다. 갇힌 자  
들을 착취해서 얻어진 아름다움은 아  
름다움일까. 미에 현혹된다는 것은 미  
의 생성과정, 구성과정을 덮어버리기도  
한다는 뜻은 아닐까. 나는 정원의 아



구라탑

름다움에 현혹되지 않으려 애썼다. 그 옆에 ‘이춘상 의거’라는 작은 나무 팻말이 보인다. 1942년 6월 20일 27세의 이춘상은 승용차에서 내리던 스오 마사스에 원장을 칼로 찔렀다. 그는 법정에서 “갱생원 부정을 사회에 폭로하고 환자 처우 개혁을 위해 도모”하고 “환자 6천명을 구하는 길은 이 한 몸 희생하여 원장을 죽이는 길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소록도의 환자들은 그의 행동을 환영했다. 그리고 그의 소망대로 스오 원장의 학정은 세상에 알려졌으나 이듬해 그는 사형됐다.

팻말 밑으로 내려오니 네모난 연못과 그 가운데 놓인 십자가에 박힌 예수상이 보인다. 연못 앞에 잘 가꾸어진 잔디와 돌길. 장소가 주는 거룩한 분위기에 잠시 압도됐다. 성서의 공간 같다. 원래는 벽돌공장이 있던 터라고 한다. 소록도에 있는 건물 모두 여기서 생산한 벽돌로 지어진 것이다. 게다가 중일전쟁 후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 벽돌공장은 설새 없이 돌아갔다. 어느 한센병 환자는 이곳이 가장 지독한 장소였다고 말할 정도였다. 한센병 환자들이 겪은 벽돌공장에서의 노동이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짐작된다. 그

런데 안타깝게도 팻말이 왼쪽 구석에 있어 지나치기 쉽다. 특히나 아름다운 연못과 신성한 분위기에 흘러 쓰욱 지나가는 사람이 많다.



만령당

우리는 만령당에 갔다. 만 명의 영혼이 있는 곳이라는 뜻의 납골당이다. 둥근 원기둥으로 우뚝 세워진 건물 위에 파란색이 씌워진 형태다. 일제가 만들어 일본과 대만에 있는 납골탑 형태도 동일하다고

한다. 식민의 잔재다. 그 안에 화장된 한센병 환자들이나 한센병을 앓았던 사람들의 유골이 나무상자에 켜켜이 쌓여 있다고 한다. 만령당 바로 뒤에 봉분 하나가 있다. 납골당이 가득차면 유해 중 일부를 이곳에 합장했다고 한다. 병을 한번 앓았을 뿐인데 그들은 죽어서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이곳에 묻혀야 했으니 그 한이 오죽 컸을까. 그래서인지 묵념하고 난 후, 사람들의 입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다.

우리는 차를 타고 자혜의원까지 갔다. 거기서 한센병 환자들을 가둔 형무소까지 걸어갔다. 형무소라 그런지 구석에 있었다. 조변호사는 10년 전에 조사를 하러 왔다가 형무소 근처에서 하얀 사슴을 봤다며 자랑을 했다. 소록도는 섬 형태가 어린사슴을 닮아서 소록도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그런데 사실 소록도에는 사슴을 방목해서 사슴도 많단다. 그는 하얀 사슴을 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며 1박 2일의 일정동안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우리는 과연 백사슴을 볼 수 있을지 수다를 떨며 형무소를 나와 길을 걸었다.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 백사슴 이야기도 나왔다. 백사슴은 멜라닌 색소가 없는 변이종인데 사람들은 그걸 특별한 존재로 여긴다. 특이한 동물은 귀하게 여기면서 특이한 병에 걸린 사람은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참 모순된다며 한탄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오겠냐며 섬을 한 바퀴 돌기로 했다. 혼자 오면 중앙공원밖에 못 오지만 조변호사와 같이 온 덕에 깊숙이 들어올 기회를 얻었으니 말이다. 소록도를 더 잘 느끼고 싶었다. 우리는 섬의 들숨과 날숨을 찬찬히 듣고 보았다. 잘 다듬은 듯 자란 나무들, 반듯한 건물들, 잔잔한 바다. 거기에 새소리까지! 섬은 참혹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아름다움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곳에 수용됐던 한센병 환자들의 강제노동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아름다움에 연신 감탄하면서도 현혹되지 않고 아름다움을 느낄 방안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졌다.

견다보니 허물어진 옛 건물도 나오고 식량창고도 볼 수 있었다. 주민들과도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만나는 주민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니 웃으며 받아주신다. 경계를 흐려버리는 미소들. 조변호사는 최근에 주민들이 많이 밝아졌다고 했다. 예전 같으면 외지인이 와도 쉽게 인사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어떤 주민은 먼저 어디서 왔냐고 묻기도 한다. 괜히 반갑고 뿌듯하다. 한국과 일본 정부에 대한 소송에서 이겼을 때 느꼈던 기쁨과는 조금은 다른 결, 피부로 닿는 기쁨이다.

소록도에는 식사할 곳이 없어 차를 타고 녹동항으로 나와 저녁을 먹었다. 녹동항에 사는 주민들과 소록도에 사는 주민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녹동항에 사는 주민들 일부는 소록도에 살다가 한센병 수용소를 만든다고 쫓겨난 사람들이다. 반면 소록도에 사는 한센병을 앓았던 사람들은 녹동항 주민들이 자신들을 괴물 보듯이 취급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한센병 환자들은 녹동항 근처에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웠다고 한다. 지금도 주민들은 녹동항에 잘 나가지 않는다고 했다.

## 당신들의 천국, 오마도개척단

저녁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왔다. 자치회 주민들의 배려로 우리는 관사지대의 숙소에 묵었다. 간호사들을 찾아온 방문객을 위한 숙소였다고 한

다. 넓고 깔끔했다. 짐을 풀고 밖으로 나왔다. 나 먼저 보라는 듯, 별이 무리지어 반짝였다. 관사 밑으로 가니 사슴 떼가 있다. 우리 목소리를 듣고 놀라 도망간다. 바닷가를 걸었다. 관사 지대 앞의 해변가는 한적하고 아름다웠다. 직원들과 직원들의 손님을 위한 곳이라 잘 꾸며놓은 것이겠지... 씁쓸하다.

다음날 아침, 소록도를 나와 녹동항을 거쳐 쪽 달려 오마도로 갔다. 오마도 간척사업은 소록도 갯생원생들의 희망을 담보로 노동력을 착취한 사기극이다. 1962년 6월 박정희 정권시절, 소록도병원장으로 부임한 조창원 원장은 소록도갯생원 원생들 중 음성환자 2,000명으로 ‘오마도 개척단’을 구성해 2년간 고흥 남단쪽에 있는 무인도인 5개의 섬을 육지와 연결하는 간척사업을 했다. 땅을 매립해 그곳에 원생들이 농사지으며 정착할 땅을 마련하겠다는 목표였다. 원생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해도, 병원장이 시키는 대로 꾸역꾸역 끌려나온 것은 ‘차별의 시선 없이 자급하며 살 수 있는 땅을 내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맨손으로 돌맹이를 쌓아 어렵게 바다를 메웠다. 그러나 공사의 80%가 넘게 완성된 1964년 7월, 간척사업의 주관자가 보사부에서 전라남도로 이관되면서 간척지를 뺏긴다. 전라남도는 고흥주민들이 문둥이들하고 어떻게 같이 사냐면 반대해 ‘오마도개척단’에게는 땅 한 평도 주지 않았다. 당시 전라남도는 선거를 앞둔 터라 표가 되는 주민들의 뜻을 우선시한 것이다.



오마도기념공원 간척사업 형상

오마방조제 끝에 ‘오마간척한센인 추모공원’이 있다. 아치형의 간판을 지나 조금 가파른 언덕으로 오르자마자 오마도를 상징하는 5개의 말 동상이 보인다. 맨 꼭대기에 이르자 오마도개척단이 작업하던 모습을 형상화한 거대한 크기의 작품이 있다. 삽질을 하는 사람, 곡괭이를 든 사람, 돌을 나르는 사람들 모습이다. 그런데 하나같이 손과 발이 훼손되지 않았다. 한센병을 앓았던 이들의 손이라고 볼 수 없었다. 다행히 자료사진을 전시한 공간이 있다.



오마도 기념공원에서 바라본 간척지

맨 꼭대기라 간척지가 한눈에 보였다. 아니 간척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길게 이어진 들판, 노랗게 익은 벼들이 하늘하늘 빛나고 있었다. 저 들판을 상상하며 고통을 감내하며 일했을 소록도 갱생원들, 두 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친 험난한 공사, 희망을 다시 절망으로 만들어버린 기만을 과연 돈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 내려오다 보니 오마도간척사업을 소재로 한 이청준의 소설 <당신들의 천국>구절이 새겨져 있다. 여전히 세상은 주류들만의 천

국일 뿐, 한센병을 앓았던 사람들처럼 비주류들에게는 지옥이다. 추모공원을 나오면서 생각해본다. 천국을 선동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탐욕의 땅에서 모두를 위한 천국은 가능한가. 『당신들의 천국』의 구절을 다시 읽어본다.

“공원이 하나 더 늘고 그곳에 바쳐진 자신들의 노력과 희생이 크면 클수록 그 노력이나 희생의 크기만큼 섬은 점점 더 낙원과는 인연이 멀어져가고 있었다.” 

**명숙**

인권활동가. 인권기록활동네트워크 소리와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에서 기록활동도 하고 있으며, 공저로 『재난을 묻다』 등이 있다.

saltomor@gmail.com